

로 바뀌었습니다...LA에는 300여개 이상의 불교사원이 있으며, 세계 모든 다양한 불교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산호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크교 성전이 있습니다.

4) 이민교회의 “이중적” 선교소명 (이사야 49:6) : 한인이민교회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사야의 이중적 소명을 갖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아픔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한국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이지역에 300여개의 한인이민 교회를 주신 것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의 부흥을 위해 이 미국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베이지역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One Voice 사역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한인이민교회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5) 영어권 사역자들과 헌신된2세들이 절실히 필요 : 베이지역의 소수민족선교는 각민족의 이민가정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움으로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교육입니다. 대부분이 난민의 지위로 오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이민을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소수민족 가정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소수민족들의 2세들을 겨냥한 사역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a. 예를 들어, 프리몬의 아프간인 집중 지역에 방과후 학업지도, 혹은, Kids Club과 같은 학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서 진도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b. 밀피타스의 경우, 미국교회들은 연합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

여 초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방과후 Kids Club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불교, 시크교, 무신론 가정의 배경에서 오고 있습니다. Kids Club은 바로 성경공부 프로그램입니다. 2시간 반정도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찬양을 배우고, 여자아이들은 craft로 성경공부의 내용을 다지고, 남자아이들은 스포츠로 특별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부모들이 알지만 오히려 좋아하며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2. 베이지역 티벳인 선교의 필요성



티벳의 선교는 전세계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교를 신봉하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게 되면, 온 세상의 불교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80세 (1935년생)의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 소재한 티벳명정부의 최고지도자이며, 종교국가인 티벳의 최고 종교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3일 주일 오전 10:30, 달라이 라마는 이곳 버클리의 Berkeley Community Theater에 모인 약 3,000명의 참가자들에게 “How to Achieve Happiness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합니다 (Berkeleyside 보도). 이 집회에 입장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티벳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베이지역에 오기전 오바마 대통령과 티벳의 인권과 독립, 그리고 중국의 탄압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